

<달밤체조 2015> 오디션 대본

양승준 (남 39세 / 36-41세 지원 가능)

S#134. 민수 사무실. 저녁.

승준 혼자 앉아 있다.
준기 들어서며 아무도 없자...좀 의외다 싶은...민수 자리에 가 앉고...

승준 : (준기 쳐다보는...아까 그 검사가 아니네...)

준기 : (말없이 쳐다보는...)

승준 : (마주보는...)

준기 : 민 준기라고 합니다.

승준 : (누군지 알겠다) 아! 준희...

준기 : (덤덤하게) 네. 민 준희 동생입니다. 그리고 최 영인씨를 ...

승준 : (보는...)

준기 :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... 짝사랑하는 남자기도 합니다.

승준 : (보는) ...

준기 : 그 바람에 본의 아니게 달밤체조의 애청자기도 하고요.

승준 : (가만히 보는...)

준기 : PD님은 검사가 참 싫으신가 봅니다. 사냥개니 애완견이니 하면서 진행자가 집안에 키우는 개 부르듯 검찰을 부르던데요...아! PD님은 아닌데...진행자가 유독 검찰을 싫어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군요..

승준 : 어떤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에는 프로듀서의 색깔이 묻어나게 되죠. 진행자의 표현 역시도 그 색깔의 일부기도 하고요. 딱히 검사를 싫어한다기보다.. 정치적 검사들을 싫어합니다.

준기 : 15년 전 고 2때 그 사람을 처음 본 후...내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. 민 준기 삶의 주인이 최 영인이 되어버린 거죠. 그 사람을 얻는 방법으로 택한 직업이 검사였습니다.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검사가 되고나서 바로였어요. 그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데... 아시다시피..검사동일체의 원칙...어찌고 하는 게 검찰 조직 아니겠습니까?

그런데... 난 여전히 그 사람 밖에 모르고 삽니다. 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 길이 점점 멀어지고 아득해지는 데도 나는 그 길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. 그래서 나는 양 승준 PD가 부럽습니다. 미치도록 부럽습니다.

그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 역시 당신의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만... 난 당신이, 양 승준이라는 남자가 또 참 밉습니다.

(애써 분위기 바꾸고) 넋두리 한 번 해봤습니다. 누나랑 영인씨랑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지죠. (일어서는...)

승준 : 가야할 길은 가는 거죠. 험하고 멀고 아득하더라도 가야할 길이라면 가는 거죠. 우리가 길을 갈 때 꼭 도착을 목적으로 갑니까? 가지 않으면...갈 수 가 없으니까...가는 거죠. (일어서며) 보내주신다니까 가봐야겠습니다. 또 달 밤 체조하러....

준기 : (보는)

S#67. 카페. 오후.

영인 차 두 잔 시켜 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. 들어서는 승준.
영인을 보고 마주보는 자리에 앉는다. 영인 차 한 잔 밀어주고.

영인 : 어떻게 된 거예요? 연출정지는 또 뭐예요?

승준 : (웃으며)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도 높이니까 무섭다 야!! 평소처럼 해!

영인 : 지금이 평소니? 평소처럼 하게? 연출정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?

승준 : 연출 못 하는 거지.

영인 : 선례가 있어?

승준 : (고개 저으며) 드라마나 예능은 모르겠는데...라디오에선 처음이지.

영인 : 이유는? 나 때문이야? 내 멘트?

승준 : 아마도...

영인 : 이국장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방송을 했다는 거야?

승준 : 흥분할건 없고...며칠은 고생해야겠어!

영인 : 뭐야? 연출정지가 며칠이면 되는 거야?

승준 : 그게 아니고 해결하는데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서...

영인 : 오차장이 나보자던데?

승준 : 기다리고 있더라.

영인 : 나 뭐라고 그러면 돼?

승준 : 그냥 하던 대로 해! 근데...노래가 문제네...

영인 : 어떻게?

승준 : 트로트 댄스 발라드... 어쨌든 잘 나가는 노래들만 트니까... 우리하곤 정 반대의 컨셉이지...게다가 국장특명도 있을테니까... (보며) 어찌나 우리 영인이?

영인 : 클로징 할때 네임싸인 해야지 뭐....

승준 : 하긴 오차장은 그거 꼭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...총돌은 없겠네.

영인 : (일어서며) 만나고 올게...저녁 같이 해! 해장국 같은 거 먹자! 속 풀리게....

승준 : 그래! 이 동네에서 해장국 제일 잘 하는 집 찾아 놓을게. 다녀와!

영인 손 흔들고 나가는. 미소 속에 승준에 대한 신뢰가....